기술 2026-103 2026.08.13.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삼익제약(01495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 성 자 류치선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제약(014950)

재도약(Re)으로 더 높이 비상(Leap)하는 3대 만성질환·CMO 전문 헬스케어 기업

기업정보(2026.08.06 기준)

대표자	권영이,이충환
설립일자	1980.07
상장일자	2025.10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주요제품	완제의약품 제조,CMO

시세정보(2026.08.06 기준)

현재가(원)	5,500
액면가(원)	100
시가총액(억 원)	511
발행주식수	10,067,588
52주 최고가(원)	25,050
52주 최저가(원)	3,705
외국인지분율	1.25
주요주주	이충환

■ 50년 업력의 전문의약품 제조 전문기업

삼익제약(이하 동사)은 1973년 이세영 회장에 의해 창업되어 천연약물의 과학화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온 이래, 2005년부터는 경구용 전문치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로 핵심역량을 전환하며 성장해왔다. 1980년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1995년 인천 부평에 중앙연구소를 개소하여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치료영역의 전문의약품 개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였고, 2025년 10월에는 스팩합병방식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자본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였다.

■ 완제의약품과 CMO를 겸비한 이원화된 사업구조

동사는 3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자체 완제의약품 생산·판매 사업과 함께, KGMP 적격업체로 등록된 인천공장을 기반으로 타 제약사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CMO(위탁생산)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44개 거래처를 대상으로 32개 품목의 위탁생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층정 제형기술 등을 통해 CMO 사업의 외형과 수익성을 함께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20년 설립한 자회사 (주)팜베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물류 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본사는 연구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과 신성장 비전 확보

동사는 자체 개발한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기술 'UniSphero'를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 항암·면역보조, 비만치료 등 다양한 영역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를 다수 등록·출원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초 선포한 중장기 비전 'Re-Leap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5개년 단계별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CSO 운영 효율화, 혁신 신약 시장지배력 강화, CMO 수주 확대, R&D 역량 강화, 자회사 연계 다각화를 핵심 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512.3	-	28.0	5.46	29.7	5.80	6.85	5.76	22.13	361	5,436	N/A	N/A
2024	558.6	9.03	36.8	6.58	35.2	6.31	7.02	5.71	23.78	391	5,665	N/A	N/A
2025	600.2	7.45	32.7	5.45	-7.5	-1.26	-1.25	-1.01	23.54	-82	7,503	N/A	1.86

삼익제약(014950)

기업경쟁력

특허 기반 제형기술력	- 이층정·서방형 제형기술 및 UniSphero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관련 특허 총 6건 등록 - 이층정·서방형 등 고난도 제형기술 기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 3대 만성질환(고혈압·당뇨·고지혈증) 중심 퍼스트제네릭 개발역량 보유
KGMP 인천공장·팜베이 기반 생산·유통 인프라	- KGMP 적격 인천공장 기반 완제의약품 자체 생산체계 확보 - 44개 거래처 대상 CMO 사업을 통한 생산설비 가동률 제고 - 자회사 (주)팜베이를 통한 전문화된 의약품 유통·물류망 구축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대표 완제의약품 포트폴리오	- 세자르정, 카덴자정 등 순환기계 치료제와 P-CAB 계열 브이캡정을 앞세운 만성질환 치료 시장 공략 강화	
UniSphero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 미세 입자 멤브레인 기반 마이크로스피어(미립구) 제조기술로 자가면역질환·항암면역보조·비만치료 등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시장경쟁력

순환기 중심 완제의약품 포트폴리오의 시장 지위	- 국내 완제의약품 시장 연평균 6%대 성장 속 매출 46.8%를 차지하는 순환기용제 포트폴리오와 전국 CSO·팜베이 유통망 기반의 안정적인 처방 기반 확보
44개 거래처 기반 CMO 사업자로서의 지위	- 국내 CMO 시장 연평균 8%대 성장 속 44개 거래처·32개 품목 위탁생산 실적과 이층정 생산기술 기반의 CMO 사업자 입지 확대
제네릭 비중 확대 추세 속 퍼스트제네릭 선점 전략	- 국내 급여의약품 중 제네릭 비중이 2021년 38.6%에서 2024년 44.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브이캡정 등 퍼스트제네릭 개발역량을 통한 선점 효과 확보

삼익제약(014950)

I. 기업 현황

50년 업력의 3대 만성질환·CMO 전문 제약사

동사는 1973년 창업, 1980년 법인화된 국내 중견 제약사로, 202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3대 만성질환 치료제와 CMO 위탁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자체 개발한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UniSphero'를 기반으로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73년 창업 이후 천연약물 기반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1980년 법인 설립을 거쳐 1995년 중앙연구소 개소로 연구개발 기반을 확립하고 1996년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2020년 의약품 유통 전문 자회사 (주)팜베이를 설립하였고, 2024년에는 어린이 멀미약 소보민시럽이 2년 연속 약국 판매 1위를 달성하였다. 2025년 10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2026년에는 P-CAB 계열 브이캡정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홈페이지가 'GDWEB 디자인 어워드'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제품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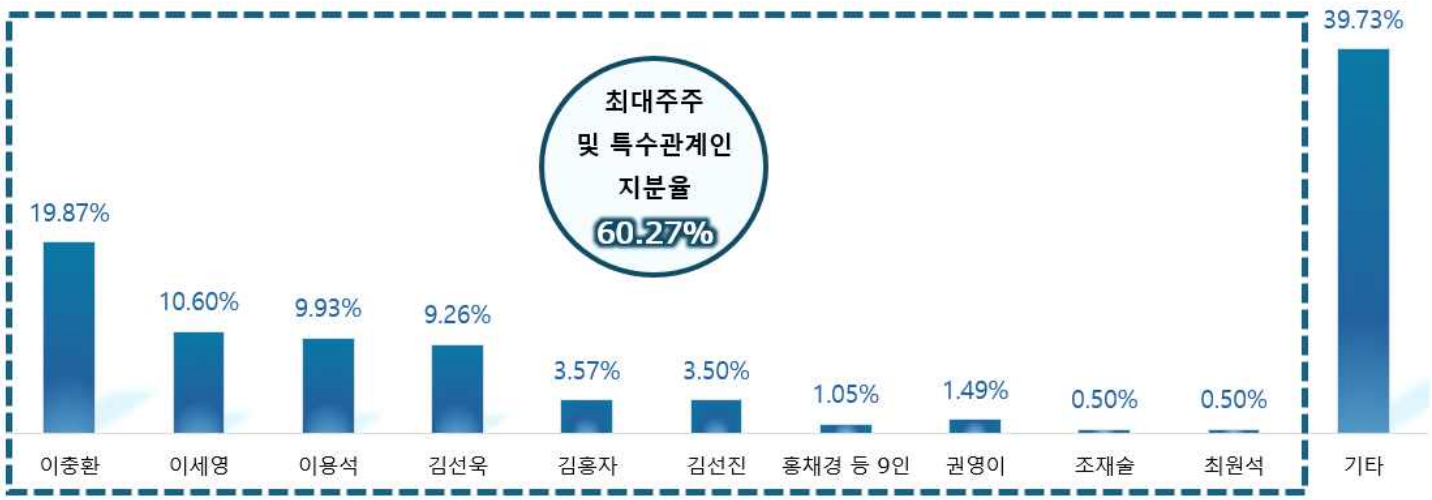
동사는 이충환, 권영이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충환 대표이사는 1994년 입사 이후 2008년 사장, 2011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0년 이상 경영 전반을 총괄해온 인물로, 최대주주로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일치도가 높아 중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권영이 대표이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박사 출신으로 우석대학교 약학과 교수,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임상바이오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이며, 2016년 취임 이후 연구개발(CTO)을 총괄하며 UniSphero 플랫폼 구축을 이끌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경영관리 역량과 R&D 전문성을 겸비한 각자대표 체제는 사업 안정성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함께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주 현황

동사는 최대주주인 이충환 대표이사가 보통주 2,000,000주(지분율 19.87%)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는 이세영 회장(10.60%), 이용석 부사장(9.93%), 김선욱(9.26%), 김홍자(3.57%), 김선진(3.50%) 외 다수 친인척 및 각자대표이사 권영이(1.49%), 조재술(0.50%), 최원석(0.50%)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8인의 합산 지분율은 60.27% 수준으로 파악되며, 최대주주 중심의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7.), NICE평가정보㈜ 재가공

■ 사업 분야

동사는 완제의약품 제조·판매 사업 및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크게 자체 완제의약품 제조·판매, CMO 위탁생산, 신약·개량신약 연구개발, 자회사를 통한 유통·물류의 네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사업부문	주요 품목	주요 사업 내용
완제의약품 제조·판매	순환기용제, 당뇨병용제, 소화기용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3대 만성질환 중심 전문의약품(ETC) 자체 개발·생산 및 전국 유통망을 통한 판매
CMO(위탁생산)	당뇨병용제, 소화기용제, 진해거담제, 순환기용제 등 32개 품목	44개 거래처 대상 완제의약품 위탁생산(이층정 기술, 대량생산 역량 기반)
신약·개량신약 R&D	UniSphero 장기지속형주사제,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자가면역질환·항암면역보조·비만치료 영역 장기지속형주사제 개발
유통·물류(팜베이)	완제의약품 도·소매 유통, 물류	100% 자회사를 통한 의약품 유통 전문화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삼익제약(014950)

[완제의약품 제조 · 판매]

동사는 2025년말 기준 총 117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3대 만성질환 치료 영역인 순환기용제(고혈압 ·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병용제, 소화기용제, 해열진통소염제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특히 순환기용제는 세자르정, 카덴자정, 바로스타틴정 등을 앞세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핵심 사업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당뇨병용제 또한 그리핀정, 디파글루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P-CAB 계열 위산분비억제제인 브이캡정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공략을 위한 소화기용제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영업조직인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체제를 통해 지방 소재 도매업체와의 유대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자회사 (주)팜베이를 통한 물류일원화 정책으로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CMO 사업]

동사는 KGMP 적격업체로 등록된 인천공장의 정제 · 경질캡슐 · 내용액제 · 사면충전 등 다양한 제형별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44개 거래처를 대상으로 당뇨병용제, 소화기용제, 진해거담제, 순환기용제 등 32개 품목의 위탁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염산메트포르민과 같은 대표적 경구 혈당강하제의 대량생산 역량과, 서로 다른 약물 성분을 하나의 정제 안에 층으로 분리해 담는 이층정 제형기술을 CMO 사업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우수 설비를 기반으로 한 주문생산 방식을 통해 재고 및 폐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거래 제약사의 적시 생산과 위탁납기 준수, 원가절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CMO 사업의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약 · 개량신약 R&D]

한편 동사는 신약 · 개량신약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제네릭 부문에서는 순환기용제 · 소화기용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량신약 부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UniSphero'를 적용하여 자가면역질환 및 원형탈모치료제, 항암 · 면역보조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UniSphero는 미세 입자 멤브레인을 활용해 마이크로스피어(미립구)의 크기와 분포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경구제 또는 잦은 투여가 필요한 주사제를 월 1회 투여로 전환할 수 있는 장기지속형 제형을 구현함으로써 환자 순응도와 치료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 · 물류 사업]

2020년 설립한 자회사 (주)팜베이는 동사 완제의약품의 도 · 소매 유통 및 물류를 전담함으로써, 동사가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사업구조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팜베이는 2024년 4월부터 물류일원화 경영정책에 따라 국내 대 · 소형 도매 및 요양기관 판매를 전담 공급하는 체계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바 있다.

최근에는 팜베이의 자체 KGSP 물류센터 투자를 추진하는 등 그룹 차원의 'R&D-생산-유통 · 물류'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중장기 비전 'Re-Leap 2030'이 지향하는 사업 다각화 및 효율성 제고 전략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II.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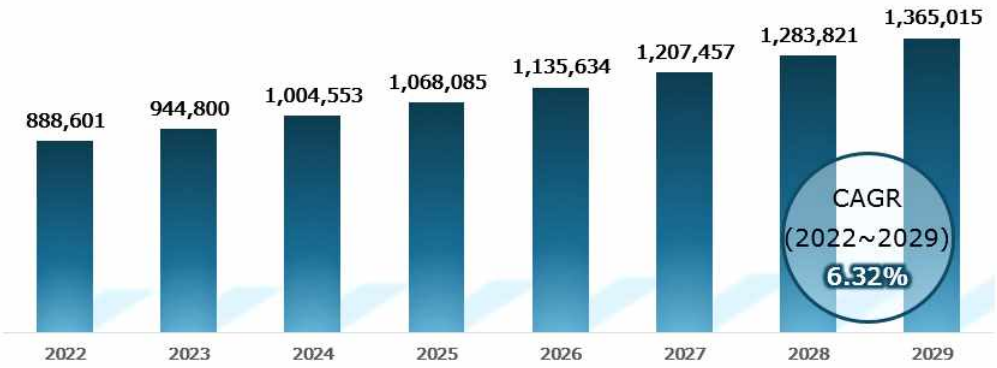
완제의약품·CMO 이원 시장, 동반 성장 국면

동사의 목표시장인 완제의약품 및 CMO 시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확대에 힘입어 각각 연평균 6.32%, 8.6%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동사의 이원화된 사업구조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완제의약품 및 CMO 시장, 견조한 성장세 지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시장의 2022년 국내 시장 규모는 88조 8,601억 원에서 연평균 6.32%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조 4,553억 원의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9년 목표시장의 규모는 136조 5,0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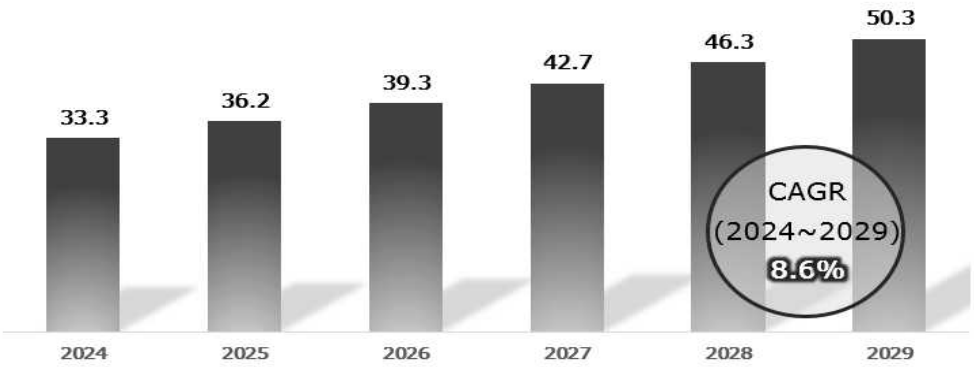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완제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 한국신용정보원(2025), NICE평가정보㈜ 재가공

또한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의약품 위탁생산(CMO) 시장의 2024년 국내 시장 규모는 33.3억 달러이며, 연평균 8.6%씩 증가하여 2029년에는 50.3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CMO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MarketsandMarkets(2024), 한국신용정보원(2026), NICE평가정보㈜ 재가공

한국은 2024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4위 규모의 CMO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9년에도 동일한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두 목표시장의 견조한 성장 추세는 완제의약품 자체 생산과 CMO 위탁생산을 병행하는 동사의 사업구조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완제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비중 확대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급여의약품 중 제네릭 비중은 44.4%로 2021년(38.6%)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오리지널 의약품(55.6%)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성장여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역량과 우수한 품질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순환기 · 내분비계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전문의약품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CDMO 시장에서는 GLP-1 계열 비만 · 당뇨 치료제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부족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고난도 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복잡성 증가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의 CDMO 활용 확대로 아웃소싱 수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기지속형주사제 등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자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제약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업체 현황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에서 생산 ·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와 각국의 약제비 통제 강화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Lonza, Catalent, WuXi AppTec, Samsung Biologics 등 대형 CDMO가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을 앞세워 글로벌 제약사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 제조역량과 CMO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다수의 중견 제약사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퍼스트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발, 특수 제형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자체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제약사일수록 CMO 수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한국프라임제약	• 순환기·소화기·호흡기 등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제네릭 및 개량신약을 개발·생산하며 위탁생산 사업도 수행하는 중견 제약사
대한뉴팜	• 전문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주력으로 다양한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며 완제의약품 위탁생산과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는 제약사
한국유니온제약	• 항생제·순환기계 등 전문의약품 제조를 기반으로 자체 제품 판매와 완제의약품 CMO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제약사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 재가공

III. 기술분석

제제기술·DDS 플랫폼·CMO 3대 기술 역량 보유

동사는 이층정 제형기술 및 UniSphero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을 핵심 기술역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KGMP 적격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한 CMO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관련 특허 6건을 등록하고 2건을 추가 출원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네릭·개량신약 제제기술

동사는 1995년 개소한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약물 성분을 하나의 정제 안에 층으로 나누어 담는 이층정 제형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량신약인 피오시타정을 개발하였다. 이층정 제조는 대량 생산 기술이 매우 까다로워 수율이 70~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동사는 90% 이상의 수율로 생산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난용성 약물의 생체이용률을 개선하는 붕해 촉진 조성물 기술(특허 10-0821208)과, 용해성 · 안정성 · 쓴맛을 동시에 개선한 소아용 시럽 제형기술(특허 10-2242382)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제기술은 퍼스트제네릭 개발 역량과 결합되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브이캡정, 고지혈증 복합제 에버다운정, 고혈압 최초 복합제 등 신규 품목의 품목허가 획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사의 완제의약품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새로운 이성질체 자료제출 의약품 지위를 확보하는 chiral drug 개발 전략은 제네릭 약가가 아닌 독자적인 약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익성 측면의 차별적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장기지속형주사제(UniSphero) 플랫폼 기술

동사는 미세 입자 멤브레인을 활용해 마이크로스피어(미립구)의 크기와 분포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자체 제조 플랫폼 'UniSphero'를 확보하고 있으며, 높은 재현성과 균일한 입도 분포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사이클로덱스트린 유도체를 활용해 난용성 약물을 고리 모양 구조(macrocyclic ring) 내부에 가두는 포접 기술을 통해, 그동안 미립구 제조의 기술적 난제로 꼽혀온 낮은 약물 봉입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바리시티닙을 대상으로 한 검증 결과 95% 이상의 약물 탑재율과 함께 투여 초기 과다 방출(Burst) 현상 억제, 1개월 이상의 안정적인 방출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분무 건조법을 적용한 장기지속형 미립구 제조방법(특허 10-2793673)과, W1/O/W2 에멀젼 방식의 사이클로덱스트린 유도체 기반 바리시티닙 포접 화합물 미립구(특허 10-2905826)를 등록하였으며, 미국 PCT 출원 및 싸이모신 알파1 함유 장기지속형 미립구 특허를 추가로 출원함으로써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면역보조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은 기존 경구제 또는 잦은 투여가 필요한 주사제를 월 1회 투여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 관련 특허 등록 소식이 전해지며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CMO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

동사는 K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적격업체로 등록된 인천공장에 정제, 경질캡슐, 내용액제, 사면충전 등 제형별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44개 거래처를 대상으로 32개 품목의 완제의약품 위탁생산을 수행한다.

특히 염산메트포르민과 같은 대량 처방 품목의 안정적 생산 역량과, 서로 다른 성분을 하나의 정제에 층상 구조로 담는 이층정 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타 제약사 대비 차별화된 CM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주문생산 방식을 통해 재고 및 폐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적시 생산과 위탁납기 준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CMO 사업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에 함께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동사는 제네릭·개량신약 제제기술, UniSphero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CMO 생산기술이라는 세 축의 기술 역량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제기술과 CMO 생산역량은 완제의약품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창출 기반을 뒷받침하고, UniSphero 플랫폼은 중장기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구조로, 동사의 기술경쟁력이 단기 실적과 중장기 성장성을 함께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연구개발 활동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대표이사 권영이(CTO) 총괄 아래 중앙연구소(제제연구팀·분석연구팀), 학술개발팀, DI팀 3개 조직, 총 17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25년 말 기준).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7.57억 원, 2024년 19.43억 원, 2025년 20.60억 원으로 매출 성장과 비례하여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전액 판관비로 연구개발비를 처리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3%대 중반의 안정적인 R&D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단위: 억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구개발비용 계	17.57	19.43	20.60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43%	3.48%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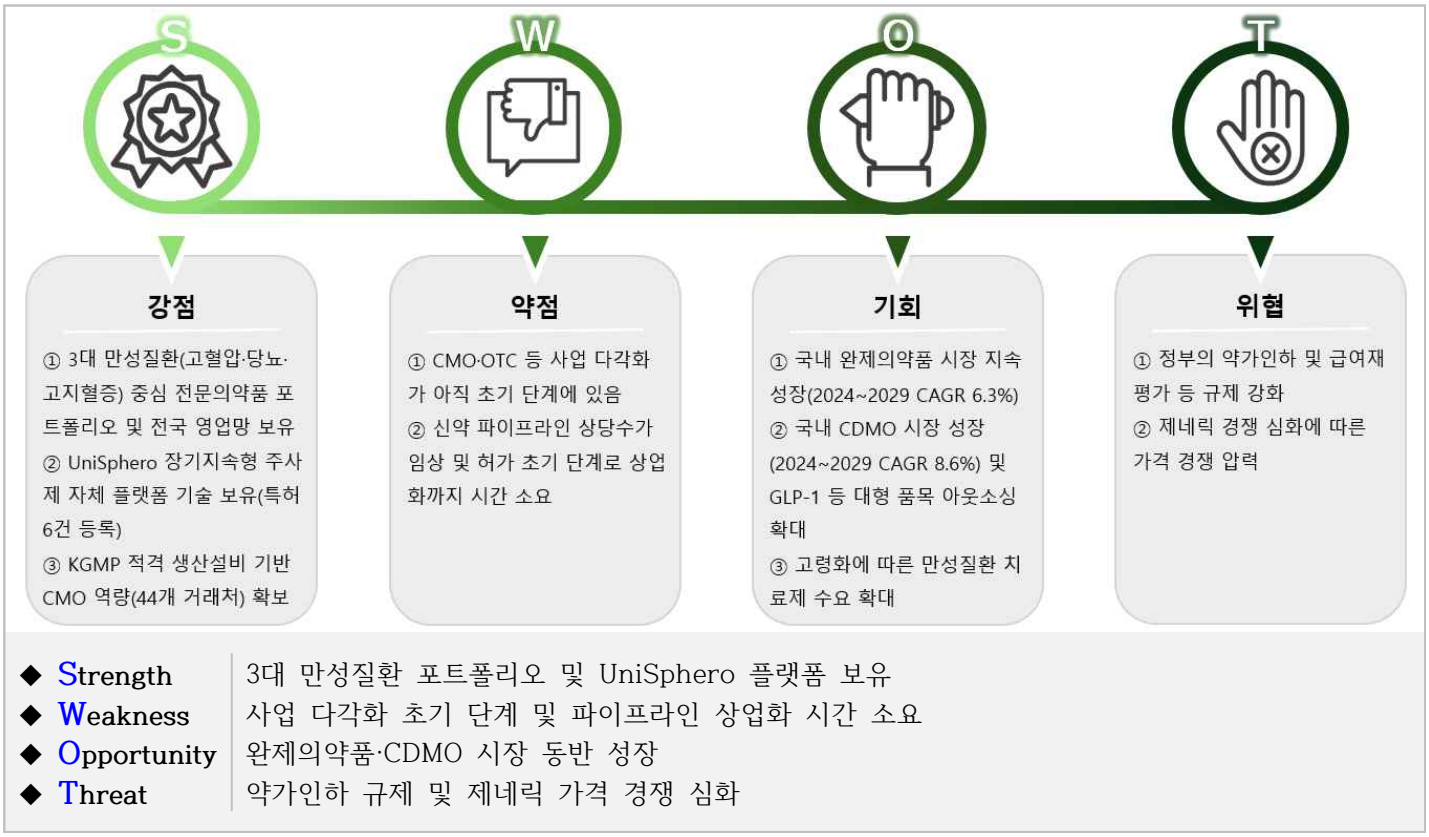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 재가공

주요 성과로는 2026년 1월 P-CAB 계열 위산분비억제제 브이캡정 10mg·20mg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이 대표적이다. 또한 제형기술 및 UniSphero 플랫폼 관련 특허 총 6건 등록 및 2건의 추가 출원(PCT 포함)을 완료하였으며, SCI 및 KCI 논문 게재를 통해 학술적 성과도 함께 축적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제로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근육피지옴 연구센터 과제가 2026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MRC) 2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향후 3년간 약 42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R&D 역량 강화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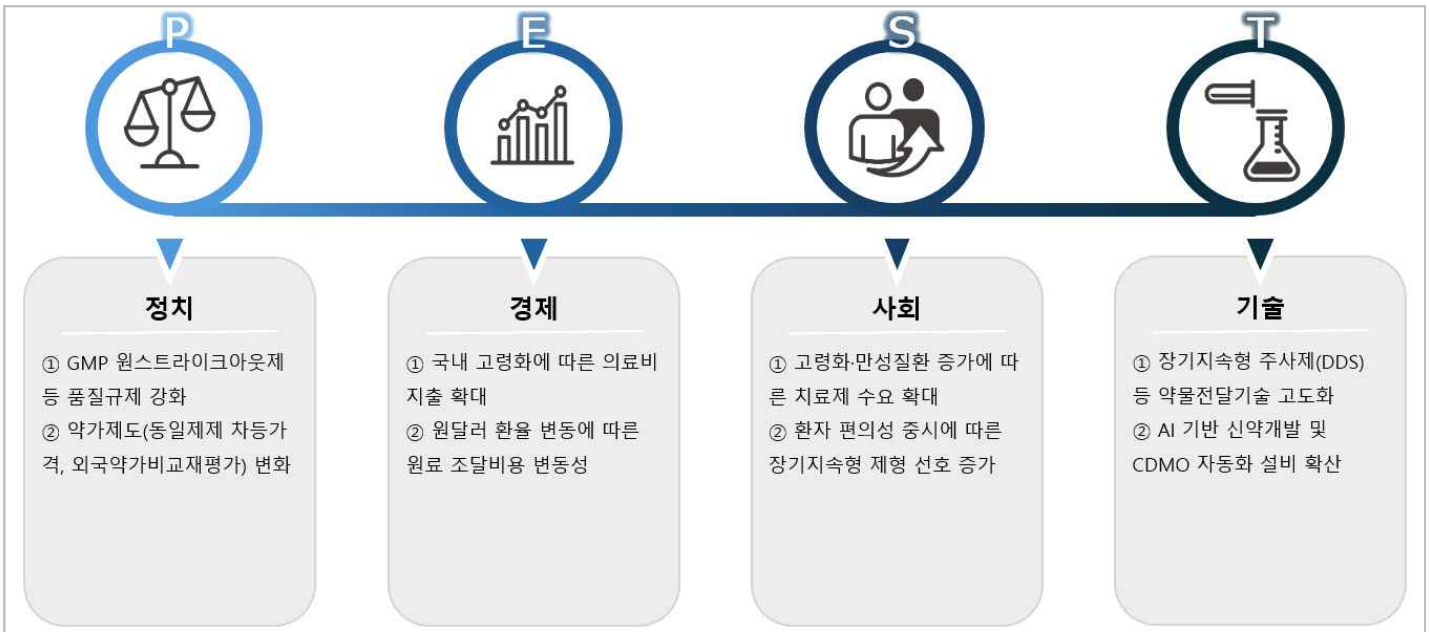
삼익제약(014950)

■ SWOT 분석



◆ Strength	3대 만성질환 포트폴리오 및 UniSphero 플랫폼 보유
◆ Weakness	사업 다각화 초기 단계 및 파이프라인 상업화 시간 소요
◆ Opportunity	완제의약품·CDMO 시장 동반 성장
◆ Threat	약가인하 규제 및 제네릭 가격 경쟁 심화

■ PEST 분석



◆ Political	품질규제 및 약가제도 강화
◆ Economic	고령화 의료비 확대 및 환율 변동성
◆ Social	만성질환 증가 및 장기지속형 제형 선호 확산
◆ Technological	DDS 기술 고도화 및 CDMO 자동화 확산

Ⅳ. 재무분석

만성질환 치료제 확대로 2025년 매출 600.2억 원, 자기자본비율 80.9%의 재무 안정성 유지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만성질환 치료제 판매 확대와 함께 전년 대비 7.5% 증가한 600.2억 원, 영업이익 32.7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155.1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 당기순이익 12.4억 원을 시현하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된 흐름을 나타내었다.

■ 만성질환 전문의약품 중심의 매출 구조

동사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3대 만성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멀미약·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타 제약사 의약품을 수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보고부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단일부문이다.

연도별 매출액은 2023년 512.3억 원, 2024년 558.6억 원, 2025년 600.2억 원으로 3개년 연평균 8.2%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순환기계치료제가 2023년 227.9억 원에서 2025년 281.1억 원으로, 당뇨병치료제가 38.3억 원에서 64.5억 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하였다. 유통 구조 측면에서는 2020년 설립한 자회사 ㈜팜베이가 국내 대·소형도매 및 요양기관 판매를 전담하는 제조·유통 분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순환기용제 46.2%, 당뇨병용제 11.7%, CMO 11.4%의 구성이 유지되며 매출 구조의 연속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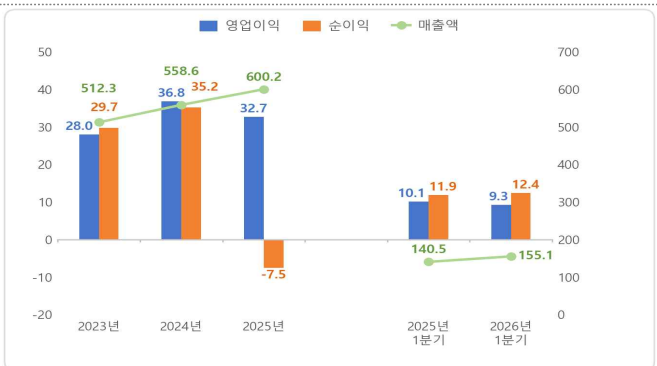
■ 매출 600.2억 원으로 외형 확대, 원가율 4.4%p 개선과 1분기 순이익률 8.0%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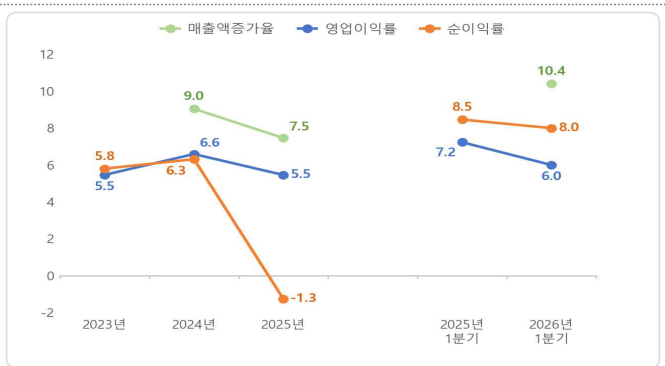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46.3억 원 증가한 558.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9.0%), 영업이익은 8.8억 원 증가한 36.8억 원, 당기순이익은 5.5억 원 증가한 35.2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6.6%, 순이익률 6.3%).

2025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6억 원 증가한 600.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7.5%), 영업이익은 4.1억 원 감소한 32.7억 원, 당기순이익은 42.7억 원 감소하며 7.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5.5%, 순이익률 −1.3%).

2026년 1분기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6억 원 증가한 155.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10.4%), 영업이익은 0.8억 원 감소한 9.3억 원, 당기순이익은 0.5억 원 증가한 12.4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6.0%, 순이익률 8.0%).

그림 5.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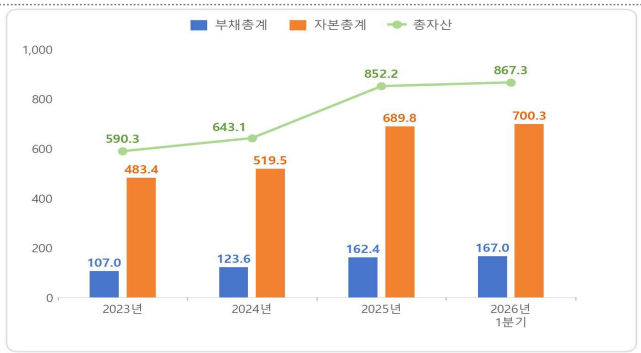
■ 상장 자본 확충으로 자본총계 700.3억 원, 자기자본비율 80.7%·유동비율 475.2%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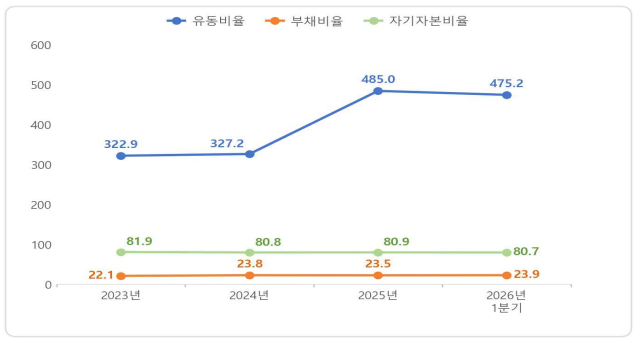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52.8억 원 증가한 643.1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6.6억 원 증가한 123.6억 원, 자본총계는 36.1억 원 증가한 519.5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4.3%p 상승한 327.2%, 부채비율 1.7%p 상승한 23.8%, 자기자본비율 1.1%p 하락한 80.8%).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209.1억 원 증가한 852.2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38.8억 원 증가한 162.4억 원, 자본총계는 170.3억 원 증가한 689.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57.8%p 상승한 485.0%, 부채비율 0.3%p 하락한 23.5%, 자기자본비율 0.1%p 상승한 80.9%).

2026년 1분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8.0억 원 증가한 867.3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36.8억 원 증가한 167.0억 원, 자본총계는 171.2억 원 증가한 700.3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51.4%p 상승한 475.2%, 부채비율 0.7%p 하락한 23.9%, 자기자본비율 0.4%p 상승한 80.7%).

그림 6.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표 4.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512.3	558.6	600.2	140.5	155.1
매출액증가율(%)	-	9.0	7.5	-	10.4
영업이익	28.0	36.8	32.7	10.1	9.3
영업이익률(%)	5.5	6.6	5.5	7.2	6.0
순이익	29.7	35.2	-7.5	11.9	12.4
순이익률(%)	5.8	6.3	-1.3	8.5	8.0
부채총계	107.0	123.6	162.4	130.2	167.0
자본총계	483.4	519.5	689.8	529.1	700.3
총자산	590.3	643.1	852.2	659.3	867.3
유동비율(%)	322.9	327.2	485.0	323.8	475.2
부채비율(%)	22.1	23.8	23.5	24.6	23.9
자기자본비율(%)	81.9	80.8	80.9	80.3	80.7
영업현금흐름	22.5	43.8	20.8	12.3	3.9
투자현금흐름	-18.7	-21.6	-11.5	-14.0	-13.6
재무현금흐름	-2.5	2.5	-2.6	-2.3	1.0
기말 현금	20.7	45.5	52.2	41.5	43.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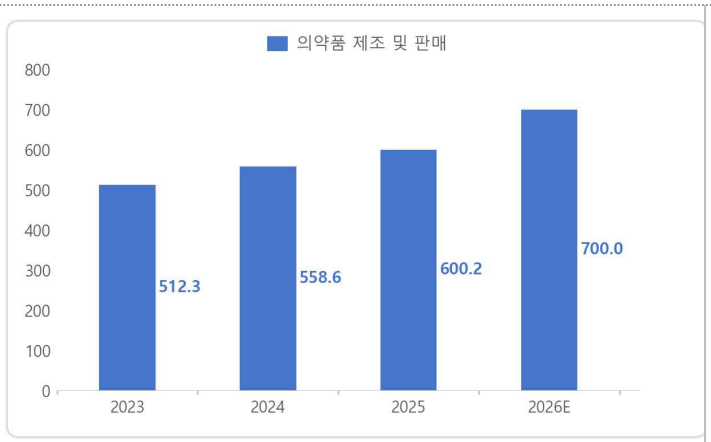
■ 퍼스트제네릭 허가와 CMO 확대에 기반한 2026년 매출 700억 원 실적 전망

동사는 2026년 5월 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하고 중장기 비전 'Re-Leap203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매출 1,300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CSO 운영 효율 극대화, 혁신 신약을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특수제제 기술 기반 CMO 수주 확대,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고도화, 자회사 ㈜팜베이를 통한 경영 다각화가 제시되었다. 또한 2026년 7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이 가결되어 사업 영역 확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6년 실적은 만성질환 전문의약품의 처방 확대와 신규 허가 품목의 진입이라는 두 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확정된 성장 동력으로는 2026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퍼스트제네릭이 있으며, 진행 중인 동력으로는 고지혈증 복합제와 본태성 고혈압 복합제의 퍼스트제네릭 개발, UniSphero 미립구 플랫폼 기반 장기지속형주사제 3종의 개량신약 개발이 있다. 시장 전제 측면에서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이 86.5%를 차지하는 수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순환기용제와 당뇨병용제를 주력으로 하는 제품 구성이 안정적인 처방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하며 성장 전환을 확인하였고, 신규 허가 품목의 매출 기여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성장률이 1분기 성장률을 상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허가 품목의 처방 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CMO 신규 수주가 추가될 경우 전망을 상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의 상업화 진전이 수익성 구조를 한 단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연도별 실적 및 전망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512.3	558.6	600.2	700.0
의약품 제조 및 판매	512.3	558.6	600.2	700.0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및 추정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Re-Leap 2030' 실행 원년, 성과 가시화 국면 진입

동사는 'Re-Leap 2030' 비전 선포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CMO 확대, 신약 R&D 강화,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브이캡정 허가, UniSphero 특허 등록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장기 성장 비전 'Re-Leap 2030' 선포로 도약 기반 마련

동사는 2026년 1월 창립 이래 가장 도전적인 로드맵으로 평가되는 중장기 비전 'Re-Leap 2030'을 선포하였다. 이는 2030년까지 매출 1,300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2026년 성장기반 공고화를 시작으로 기회창출(2027년), 효율성 제고(2028년), 성장가속화(2029년)를 거쳐 목표를 달성한다는 5단계 실행 플랜을 골자로 한다.

세부 전략으로는 CSO 운영 효율 극대화, 혁신 고혈압 복합제 신약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특수제제 기술 기반 CMO 수주 확대,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고도화, 자회사 팜베이를 통한 경영 다각화가 제시되었으며, 분기별 성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 신약 허가 및 R&D 성과의 가시화

동사는 2026년 1월 P-CAB 계열 위산분비억제제 브이캡정 10mg · 20mg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브이캡정은 30정 · 100정 병포장 방식을 채택하여 처방 · 조제 및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기존 오리지널 및 일부 제네릭 제품이 PTP 포장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UniSphero 플랫폼을 활용한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특허가 연이어 등록되며 차세대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력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 제약사에서 기술 중심의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수행 중인 근육피지옴연구센터 과제가 2026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MRC) 2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향후 3년간 약 42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R&D 저변 확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회사 연계 사업 다각화 및 생산 인프라 투자 확대

동사는 2025년 12월 인천공장 별관 신축에 착공하며 완제의약품 및 CMO 생산능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회사 (주)팜베이는 2027년 1분기 자체 KGSP 물류센터 가동을 목표로 물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R&D-생산-유통 · 물류'로 이어지는 그룹 밸류체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삼익제약 홈페이지가 'GDWEB 디자인 어워드' 제약 · 바이오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동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2025 사업연도 배당성향 25.0%, 이익배당금액 약 3.7억 원(전기 대비 28.61% 증가)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이익창출 기조와 주주환원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R&D 성과와 인프라 투자, 주주환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향후 'Re-Leap 2030' 비전 달성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익제약(01495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3대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와 자체 개발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 'UniSphero'를 앞세워, 완제의약품과 CMO 이원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2030년 매출 2배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삼익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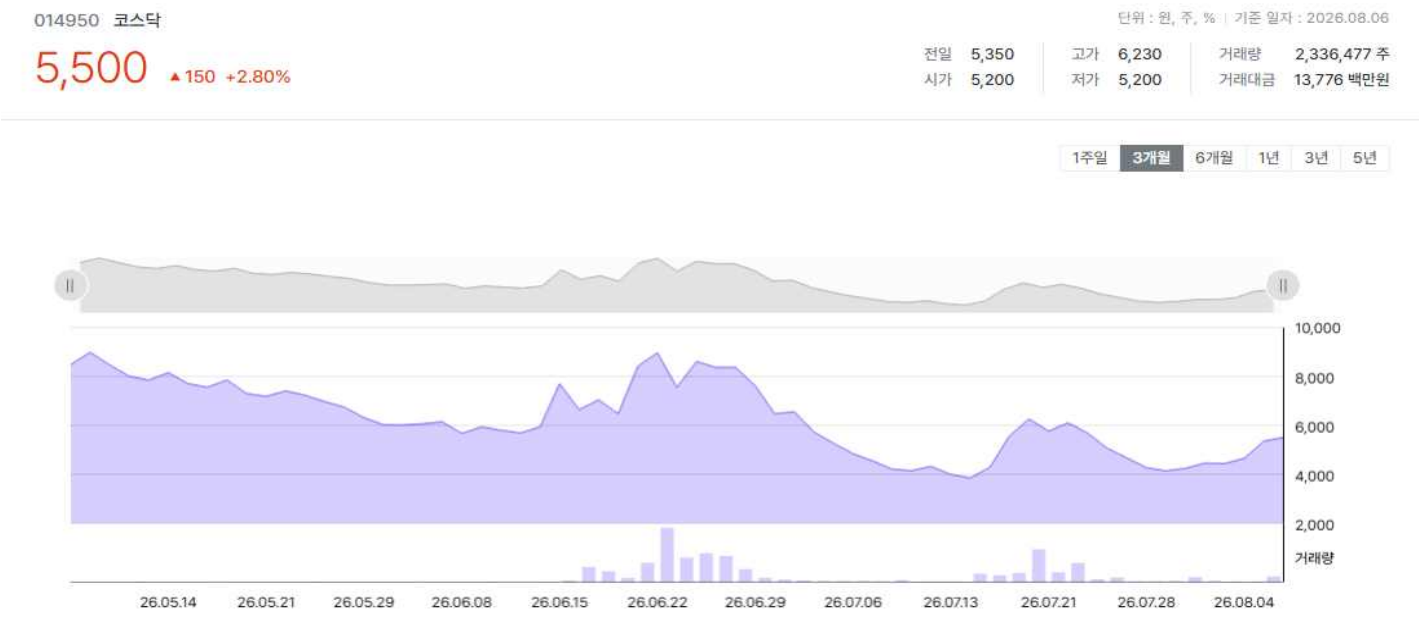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8.0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삼익제약	X	X	X